



검정된 총장 이광현
부산교대의 미래를 책임진다

교육학과
교수

2

2

교육학과 교수 검증된 총장 이광현



우리 대학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셨습니다.

2011년 국립대 총장 간선제 반대투쟁

교수협의회 임원으로 국립대 총장 간선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2019년 재정사업 기반 구축

대외협력단장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해당 학과에 맡기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등 제반 재정지원사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구성원을 지키는데 늘 앞장섰습니다.

2016년 연구비 반환 감사 대응

교육연구원장으로 부당한 연구비 반환 감사에 맞서 변호사를 지원하고 승소했습니다.

2021년 교연비 감사 대응

기획처장 근무 당시 부당한 교연비 감사를 막았습니다.



교육행정 전문가로 부산교대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학력

서울대 졸업. 듀크 대학교 정책학 석사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정책 전공)

■ 주요 경력

2005년 교육부 전문대학 평가위원

2014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혁신 자문위원

2016~18년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평가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

2012~20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위원

20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앙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

2025년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정부(교육부 등)와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부산교대 발전에 저의 교육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기여할 것입니다.



일하는 '정책형' 총장 **이광현** **단디** 챙기겠습니다!

1. 현황 진단

- 상호 존중 없는 일방적 행정 진행
-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사실들



2. 대응의 원칙과 방안

- 투명하게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 법률 자문단을 포함한
통합 대응 TF 팀 구성
- 대학평의원회 상시 개최

3. 반드시 지켜야 할 통합의 기본 조건

- 예산 확보 및 독립
- 교대캠퍼스 현재 행정인력 규모 유지
- 교직원 인사제청권 확보
- 초등교육 목적성 수호
- 고등교육법 개정

4. 세부 맞춤형 공약

- 통합대학 학칙, 규정,
세부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킬
세부 맞춤형 공약



상호 존중 없는 일방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지 관련

- ▶ 통합신청서에는 ‘교육대학으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은 불허한다’는 문구를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2028학년도 부산대 입학전형에 다음과 같이 ‘불가능할 수 있음’으로 수정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에 따른 사전 안내

1. 통합대학 출범 시기 : 2027. 3. 1.(월)

2. 안내사항

-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대학에서 기존 부산교육대학교에 해당하는 단과대학은 교육대학임
- 교육대학으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은 불가능할 수 있음

- ▶ 이는 양 대학 통합의 전제인 상호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조직 정원 안 문제

- ▶ 캠퍼스 조직 및 정원 배치 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지 않고 부산대 안만을 부산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 부산대, 부산교대 연제캠퍼스 정원배치(안) 총괄 〉

구분	부산교대 안(A)	부산대 안(B)	부산대 안 대비 부산교대 안 (A-B)
교육특화총괄본부	28명	25명	+3명
부속시설 및 교육기본시설 분원	15명	15명	-
단과대학(원)	4명	5명	-1명
총계	47명	45명*	+2명

* 現 부산대에서 통합 이후 연제캠퍼스로 이동하는 인원(6명) 포함

- ▶ 부산대 안은 현 부산대에서 연제캠퍼스로 6명 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5명이 아니라 39명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안입니다.
- ▶ 부산대는 결과적으로 부산교대 안인 47명보다 8명을 축소한 일방적인 정원배치 안을 교육부에 단독으로 송부함으로써 통합의 기반인 상호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우리 교대 구성원들이 모르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15 + 90

더하면 105, 부산대 사범대 교수 정원입니다.
사범대 교수 전원이 현재 교대 캠퍼스로 이전 (2027년 15명,
이후 2029년도까지 남은 90명 사범대 교수 전원)한다는
통합추진안이 작년에 제출되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1).
통합계획서의 사범대 이전에 대한 내용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채널 PNU 기사(사범대 위한 105실 센터 짓지만, 활용방안 불투명)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8542>
옆 QR코드로 연결



KREON 기금 조성 약속은?

글로벌 계획에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200억 원의 KREON 기금 조성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0억 원, 2025년 50억 원 조성 계획이
현재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글로벌 평가에서 평가위원이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2).

(2) 기금미조성 현황에 대한 평가위원의 지적은 NRF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지방대학, 글로벌대학 동행평가 23년 지정대학 2026.06.09.
유튜브 채널 후반부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HfU3iN6SKlo> 옆 QR코드로 연결



원칙: 통합 관련 행정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전문적으로!

[방안1]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통합 대응 TF팀 구성!

■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23년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서
- 25년 양 대학 통합신청서
- 글로컬대학 실적 보고서
- 기타 양 대학의 통합 진행 관련 행정 서류, 글로컬 동행평가 내용 등 그 모두를 꼼꼼히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행정행위 과정의 귀책사유 및 절차상 하자 수집·분석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례 검토

대학 구성원 대상 설명의무 위반 사례 조사·분석

[방안2] 대학평의위원회 상시적 개최!

초등교육 목적성 수호

초등교육 복수전공 금지의 명문화가 명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산대의 통합신청서 내용 이행 위반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사범대의 교대캠퍼스 이전 문제

한 건물에 사범대 교수 105명이 근무하는 건물신축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통합문서 등을 공개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KREON 기금 미조성 문제

글로컬 사업 예산 실적보고서 문서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도까지 계획된 기금이 모두 조성되어야 합니다.

부산대의 일방적 행정 진행 문제

총장이 부재한 시기 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부산대의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행정진행 절차에 대해서 공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교대캠퍼스 행정조직 독립운영

교대캠퍼스 행정조직 현 규모 유지 및 직원 인사제청권 확보 등 독립적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고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의 제·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통합의 기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통합대학 학칙과 세부이행계획에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예산 독립

- ✓ KREON 운영 예산 매년 15억 배정 및 교육대학 사업 예산 (국립대육성사업 수준 3~40억) 배정 학칙에 명시
- ✓ KREON 기금 200억 즉각 조성

2. 독립 행정조직

- ✓ 교대캠퍼스 90여명의 현 직원이 모두 근무하는 체계 구축
부서는 조정되어도 근무지는 교대캠퍼스에 기존 인력체계와 규모 유지
(학생지원팀, 입학팀 등 제반 분원 설치)
- ✓ 모든 직의 근무승계 보장 및 처우 개선

3. 인사독립권

- ✓ 교대캠퍼스 '독립운영 관리 규정' 제정
교대캠퍼스 직원 인사는 연제부총장의 인사 제청권 명시
- ✓ 직원 승진쿼터제 명시

4. 초등교육 독자성

- ✓ 통합대학 학칙에 초등교육 복수전공 금지 명문화
- ✓ 교양과정 및 교직과정 연계는 교대 특성 기반 및 3년 유예

교육부에서는 24년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고등교육법 개정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5. 고등교육법 개정

- ✓ 총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제·개정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지켜지고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통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수 : 행복한 교육 · 연구를 위한 선진적 대학 제도 구현

연구지원의 선진화: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 국립대육성 학예술 지원 연구 성과 다년 과제로 전환 및 지원금 증액
- 크레온 연구비- 교대 교수 역량 강화 지원으로 전환 및 저역서사업 등으로 확대
- 교대 교수 정원 90명으로 증원 추진
- 연구 및 예술공연전시 실적 증빙서류 간소화
- 해외학술대회 · 해외예술전시공연 지원 확대(국제학회 발표, 좌장, 토론, 주관 등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지원) 및 국제 학예술성과평가 개선(가중치 200%로 확대). 해외 대학 워크샵 연수 예산 적용 확대
- 크레온을 통한 학부생과 국내외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 지원 및 크레온 LAB 매칭 펀드 지원 (3천만원 이상 지원)
- 샌드박스 사업 예산 확대 및 연구 및 교육사업과제 상시 아이디어 공모 운영
- 개인별 모바일 기기 보급: 교외 출장 시에도 원격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

승진 및 연구교수 제도 혁신

- 교수승진 조기 시행: 타 대학 경력 합산 승진발령 2026년도 10월 1일자로 즉각 시행
- 조교수 4년, 부교수 4년 총 8년 정교수 승진 기간 단축 즉각 도입
- 연구업적평가 3인 이상 공동 논문도 주저자나 교신저자는 70%로 인정
- 연구년 학과별 인원 규제 완화: 현행 25% 규제 폐지 또는 50%로 완화
- 높은 환율을 고려한 해외파견교수 연구지원비 증액(참고: 해양대는 1,700만원)
- 장기 연구년 도입: 국립경상대학교 사례 벤치마킹-6개월, 12개월, 18개월 연구년제 시행. 18개월 장기 연구년은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재직 기간 중 1회만 가능
- 연구년 교수의 성과연봉제 평가에서의 2년 연속 불이익 개선. 연구년 5년마다 지원 유지

교육체제의 내실화

- 책임시수 감면: 현행 연간 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감축(논문지도학점 신설 및 포함)
- 신속한 박사학위과정 설치: 교육전문대학원부터 추진. 2026년 12월 신입생 모집
- 혁신수업 활성화: 학부 및 대학원 온라인 LMS 수업 운영비용 확대. 외부 전문가 초빙 혁신 수업 확대 등
- 부울경 교육청과의 연계협력 프로그램 및 계약학과 사업 확대
 - ※ 대학원 파견교사제 확대 추진. 부울경 교육청 연계 인공지능교육 전공 유지·확대(독립적 인공지능교육 대학원 전공 지속), 예체능/과학전담교사 등 파견교사 확대. 교육청과 연계한 특화 전공 개설. 부울경 교육청과 연계한 교원 및 교육행정직 전문연수센터 유치
- RA, TA 지원제도 도입
- 학부생과 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 지원
- 대학원 주임교수 전공 개수(현행 2개 전공) 제한 폐지. 퇴직 전 2년간 5학점 수업 유지
- 신입생 적응 교과목 신설(1학점): 이화여대, 강원대 등 여러 대학에서 운영 중. 교수-학생 간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관계 형성 가능 및 중도탈락률 감소 효과
- 학사제도 유연화: 학부 및 대학원 집중이수제 활성화 및 책임시수 연간 단위로 운영
- 교양과정 및 심화과정 선택강좌 수 확대 편성(교수 책임시수 보장 강화).
- 교양학점 27로 하향조정-초등교과전공과정 학점(ex: 초등시소프트웨어교재연구) 강화
- 교양과정 및 교직과정 연계는 3년 유예-교대교수님들의 시수 보장에 근거하여 교대 중심으로 추진
-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관 특화
 - SW·AI 교원교육센터 설치:소프트웨어 중점 교원양성대학



직원 · 조교 : 워라벨 구현, 행복 일터 구축

✓ 국제역량강화 & 스마트 행정

- 직원 · 조교 국제역량 강화 사업 추진: 직원 · 조교 전체 워크숍 해외 지역 추진. 국외 연수 개별 맞춤형 추진. 단기 행정연수 시행(예: 후쿠오카 교대 하계 단기행정연수)
- 개인별 모바일 기기 보급: 교외 출장 시에도 원격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
-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 능력 향상 교육 지원 및 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 추진
- 장기 근속 직원(5년, 10년, 15년 등 5년단위 근속) 대상 2주 이상 장기 휴가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워라벨 Work-Life Balance BNUE

- 유연근무제 확대 및 재택 원격근무 확대
- 근무 시간 외 (보직)교수의 업무관련 카톡, 문자, 이메일 등 금지
- 스마트 당직 체계 도입: 정시 퇴근 원격 점검 체계 마련
- 민원인 응대 보호시스템 마련: 통화 녹음 자동안내 멘트 기능 도입
-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인권센터와 연계 및 무료 법률지원단 운영

✓ 공정한 행정 시스템 정착

- 본인의 희망부서와 적성을 고려한 인사행정체제 구축
- 승진지원 사업 내실화 및 공정한 승진체계 마련
- 부서 간, 학과 간 행정업무 편중 완화 · 해소
- 순환보직제, 직무분석으로 공정한 부서 이동·배치
- 평판이나 관계가 아닌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제 마련
- 성실 우수 직원·조교 포상제도 확대 시행
- 주요 정책과 변화에 교직원 참여 보장, 정기적 소통 채널 운영

✓ 평생교육 체제 구축

- 평생교육원 수강 지원, 부산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대학원 진학 장학 프로그램 추진
- 국내 및 해외 선진 대학 견학 프로그램 실시
- 직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공공기관 행정, 재무 관리, 디지털 역량 증진

✓ 복지

- 교연학비 총액 인상 및 지속 지급. 글로벌30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지속
- 동아리, 취미활동 지원금 증액
- 교직원 주차비 추가 할인 시행
- 본관 지하에 소재한 교직원 복합문화센터 시설 추가 확충
- 내실있는 주 4.5일제 근무 - 매주 수요일 오후 문화체육행사 시행: 개인별 맞춤형으로 추진
- 건강검진 지원, 치과 등 병원 협약 및 지원 확대(학내 구성원 모두에 해당)
- 유아통합학교 설립 및 교직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학내 구성원 모두에 해당)
-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휴게공간 확보 및 기존 휴게공간 리모델링 추진



학생 : 초등 임용 미래가 보장된 행복한 교육대학

✓ 임용

- 초등임용시험합격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확대
 - ※ 현장 초등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 등 확대
- 학년별 맞춤형 임용시험 대비 체제 확립
- 초등임용 모의고사 출제교수 풀 분석 및 임용 지원 전담 교수제도 도입
- 임용준비지원 조직 특화 및 관련 예산 증액
- 학과별 임용준비 특화 공간 배정. 임용 인강 도서관 PC에서 무료 수강 지원

✓ 교육

- 부산대와 통합 전제조건 수호: 타 단과대학 학부생 초등교육 복수전공 금지
- 국제교육사업 지속적 확대: 스타트 PLUS 사업 및 해외 국제학교 현장 교육실습 다각화
(미국, 호주, 필리핀 +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으로 확대). 스타트 플러스 사업 비수혜학생 우선지원.
교수와 해외 연구주제 연계 사업으로 확대(가칭: 스타트 PLUS-UP 사업 시행)
- 국내 및 해외대학 복수학위 협정 체결
(경인교대, 중국 산둥사범대,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등과 국내 및 국제복수학위 협정 체결)
- 해외교류대학 및 국내교류대학 확대
 - ※ 해외대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이후 임용고사 시험이 늦춰지지 않는 방안 마련
 - ※ 일본 쓰쿠바 대학 등 IB 교육과정 대학 및 외국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교류 확대
- 학부, 석사, 박사 연계과정 도입
- 학점 상대평가 비율 합리적 축소 및 절대 평가 시범 운영
- LMS 강의 비율 적정비율로 확대 및 첨단 녹음실 확보
-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해외대학(덴마크 등) 비교과프로그램 연수 추진
- 졸업논문 대체 과정 다양화: 한세 고전 읽기 수료증 제도 등 도입
- 학부·대학원생 우수 졸업 논문 시상제도 도입
- 학부·대학원생 국내외 학술대회 (교수님과과의 공동) 논문발표 지원 제도 마련
- 인공지능 프로그램(ChatGPT, SUNO 등) 무료 사용 가능한 도서관 PC 지원
- 대학원생 전용 공동연구실 공간 확보. BGEC에 부산교대 역사관 설치

✓ 건강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 구내 매점 (무인 편의점) 등 편의시설 마련
- 더 맛있는 학식(기식) - 학식(기식) 개선
- 대학보건실 마련

✓ 복지

- 도서관 소지품 보관함 확대
- 본부와 정기적 간담회 추진 및 대학평의원회 주기적 개최
- 학생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확대 및 대동제 예산 1억 이상으로 증액
- 세미나실 추가 확보
- 생활관 시설 개선 및 운동시설 개선

부산교육대학교

맞춤형 공약이 통합대학 학칙과 규정, 세부이행계획서에 모두 반영되는 것도 통합의 전제조건이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교육학과 교수
검증된 총장
이광현

2

1970년생. 만 55세. 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학력

서울대 인문대학 문학 학사 (논문: 다산 정약용 실학사상 연구)
미국 듀크대학교 정책학 석사. 교육정책 전공(논문: 차터스쿨 운동으로부터의 교훈)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육학 박사. 교육정책 전공(논문: 학교 책무성 정책과 차터스쿨 연구)

■ 경력

2007년~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등
2005~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교육통계분석팀장

■ 교내

2023~2024년 부산교육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수협의회장
2021년 부산교육대학교 기획처장
2019년 부산교육대학교 대외협력단장
2015~2016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 교외

2025년~ 현재 교육부 교육통계정보위원회 자문위원
2021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
2020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앙위원
2020년, 2018년 등 10여년 간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평가위원
2016~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
2016~2018년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평가위원
2014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혁신 자문위원
2005년 교육부 전문대학 평가위원
징계사항: 견책(2024년 사면)

■ 저서

다시 읽는 교육학개론: 사라져가는 피그말리온 효과, 교육통계연구방법론. 교육사회학.

■ 주요논문

Do charter schools spur improved efficiency in traditional public schools in Michigans?(SSCI)
수학사교육비 지출이 초등학생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2024년), CIPP 모형에 근거한 문재인
정부 교원정책 평가(2022년), 학령인구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2022년),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분석과 기초학력 향상방안(2021년) 등 50여편.



“

**전국 모든
교육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부산교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부산교육대학교 개교 80주년
since 1946

2

행동하는 준비된 총장

이광현